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공사 막바지

전주시, 구조물 철거 시작 이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본부석 철거 돌입

전주시 숙원과 중점사업인 컨벤션센터 소광물 신축건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철거공사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60여 년간 전주의 중심부에서 자리를 지켜온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종합경기장 건축물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본부석 철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범기 전주시장은 마지막 구조물 철거에 돌입한 전주종합경기장 철거공사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시는 총 105억 원을 투입해 전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3만5594㎡)과 전주푸드(1057㎡), 수위실(100㎡) 등 총 연면적 3만6751㎡의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종합경기장 철거공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마지막 구조물 철거에 돌입한 전주종합경기장 철거공사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시는 이날 남아있는 본부석 철거를 시작해 이달 중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올 상반기까지 폐기물 처리와 현장 정리 등 모든 철거 공정을 마무리

리하고, 하반기부터는 MICE복합단지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종합경기장 철거공사가 조만간 마무리됨에 따라 MICE단지 내에 숙박 및 판매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롯데쇼핑)와 단계별 협업을 강화하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전주시립미술관 △거버넌스 기반 메타버스 아이디어-사업화 실증단지(G-Town) 통합조성 등 문화·산업시설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6월에 종합경기장 내부의 석면을 우선 철거하고 11월 개최한 안전기원·착공식을 시작으로 전주종합경기장 철거를 본격화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옛 전주푸드 건물과 수위실, 옥외화장실 등 부속건축물이 우선 철거했으며 지난 3월부터 종합경기장 구조물 철거가 시작돼 현재는 본부석 외 구간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이 철거와 마이스(MICE)산업 중심의 복합단지 개발은 전주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주를 글로벌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으로, 올해는 미국 내 심포지움 및 박람회 참여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과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하는 R&D 발굴 및 기획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전주지역 기업은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에 5개사, R&D 발굴 및 기획 사업에 4개사가 각각 선정됐으며,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된 5개사는 오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행사인 '바이오 USA'에 참여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첨단 의료제품을 전시하고 글로벌 바이오 선도 기업·연구기관과 비즈니스 미팅을 포함해 다양한 토론회 및 워크숍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바이오기업들이 해외 투자 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시장 진입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적극 대응키로 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6대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IP(지식재산)기반 미래기업인 육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맞춤형 교육 시작

전주시가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을 키워나갈 미래기업인을 육성키로 했다.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 이하 진흥원)은 2025년 전주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IP(지식재산) 인식 확산과 창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IP(지식재산) 기반 미래기업인 육성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IP(지식재산)기반 미래기업인 육성 프로젝트'는 특허와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확산을 위해 메타버스와 AI 등 디지털 신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활동 주제를 가지고 초·중·고 대상별 수준에 맞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지난 3월부터 한 달여 동안 전주지역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했으며, 그 결과 총 15개 학교, 366명 학생이 모집됐다.

이번 교육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되며, 진흥원은 초등학생·중학생은 16시

간, 고등학생은 20시간 교육으로 학교별 일정에 따라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메타버스(가상공간)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활동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제별 활동 속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기술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진흥원은 발명 이론과 온라인 전자출원 실습 등을 통해 개인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특허와 발명으로 이어지는지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허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IP(지식재산)기반 미래기업인 육성 프로젝트는 기존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의 교육 모델"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의 인재가 지역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미래기업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바이오 기업 글로벌 진출 돕는다

전북자치도·테크노파크와 국·내외 바이오 박람회 참가 기업 지원

전주시가 지역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돼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국·내외 바이오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그간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인프라 구축과 기업 R&D 지원 사업, 신축 입주 공간 확보 등 첨단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박차를 가해 왔으며, 여기에 지역 바이오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시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펼쳐지는 '바이오 KOREA

2025'의 전북홍보관에 참여하는 전주 지역 6개 기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메디앤리서치 △바이엘티 △바이오올로직스 △CBH △오가널 △헬스케어크레인스로, 바이러스 치료제부터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바이오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함됐다.

이번 바이오 KOREA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전시 등록 및 전시회 디렉토리 북 등재, 부스 입차 및 기본 장치비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들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최신 글로벌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통해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및 해외 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바이오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북 보스턴 오피노베이션'과 연계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 기업들이 성

전주시보건소, 10월 12일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운영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과 설사 환자 집단발생 감시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추석 연휴 포함)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와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기온 상승과 장마 등으로 병원체 증식이 쉬운 여름철에 급증한다는 것.

이에 보건소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유관부서와 상황을 공유하

고, 5월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점검을 위한 비상응소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및 설사 환자 집단발생의 신속한 인지 및 대응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에 적시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발생 신고 시 원인 규명을 위

전물군경미방인회 전북지부, 안동 산불 피해 성금 전달

대한민국 전물군경미방인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양성이)는 7일 전주시를 찾아 경북 안동시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526만5000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민을 위로하고 재난 극복을 돕기 위해 전북지부 소속 회원들이 마련한 것으로, 경북사회복지공동

모금회를 통해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긴급구호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양성이 지부장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덕진구·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출산 축하선물 꾸러미 전달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심규문)와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은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출산 축하 선물 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과 선물 꾸러미 제작자(지역주민)가 참석하였으며, 선물을 전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출산 축하 선물 꾸러미는 지방 소멸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출생을 축하하고 함께 키우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마련되었으며, 꾸러미는 급출, 애착인형, 턱받이,



수면조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이 틈틈이 손수 만든 결과물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